

‘혈세 먹는 하마’ 광주·전남 버스

광주 준공영제보전금 7년만에 2배...전남 승객 감소에 지원금 늘어

방만경영 등 감사 나서야

광주시가 ‘시민혈세’로 시내버스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 시행 7년 만에 적자 보전금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버스 회사의 방만경영 등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선 신설이나 버스 대수 확충, 서비스 향상 등 시민편의와 직결된 운영 시스템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인건비와 유류비 증가 등을 이유로 적자 보전금만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다.

전남지역의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도 수송인원은 수년동안 줄어들거나 정체 상태에 있는 반면 재정지원금은 대폭 늘어난 상황이다. <관련기사 3면>

1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21일부터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광주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 보전금으로 2007년 196억원, 2008년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2억원, 2011년 301억원, 2012년 350억원, 2013년 395억원 등 총 2175억원을 지원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적자 보전금은 급증하는 추세로, 오는 2018년이면 690억원으로 준공영제 시행 첫해보다 무려 3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 1대당 연간 재정 지원금은 2007년 2060만원에서 2013년 4082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버스회사의 방만경영 등이 의심되고 있다.

시는 재정 지원금 증가는 인건비(2007년 829억원→2013년 1046억원)와 유류비용(282억원→383억원)의 급증이 주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버스회사의 운송수입이 2007년 1109억원에서 2013년 1283억원으로 200억원 가까이 증가한데다 정비비용 감소에 따른 인건비 전월, 부품값 싸들리기 등 각종 비리성 행위마저 끊이지 않으면서 재정지원금의 증가요인을 재점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버스 준공영제·재정지원금제
‘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업체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출해 수익금을 업체가 관리하고 비수익노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광주, 서울 등 광역·특별시에서 시행중이다. ‘버스 재정지원금 제도’는 농어촌지역 등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 노후 차량 대체 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돈을 절반씩 부담해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등을 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 직원 3~4명만 투입하는 것도 논란이다.

이 같은 각종 부작용 때문에 광주시의회는 16일 제2차 추경예산심의를 통해 준공영제 추가 예산 50억원을 삭감했다.

전남도의 버스 재정지원 상황도 심각하다. 전남도의 등록된 버스 1대당 연간 평균 지원금은 시외버스의 경우 1582만원, 시내·농어촌버스는 1515만원이다. 도는 버스차량대수, 유류사용량, 비수익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업체가 내놓은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씩인 전남지역의 시외버스 및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금은 지난 2011년 190억4800만원에서 올해 278억2300만원으로 3년 만에 87억7500만원이 증가했다.

전남도는 유류 가격 및 물가 상승을 원인으로 내놓았지만 석연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에서는 2011년 11월 자동차용 경유 가격(주유소)이 리터당 1788원에서 2014년 11월 1534원으로 하락했다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외버스의 수송인원은 지난 2011년 3072만8953명에서 지난해 3101만 1642명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거도 송년우체통 담긴 사연 ▶ 2면
2014 국내·국제 10대 뉴스 ▶ 18면



사람 속 동전모아 이웃돕기

16일 광주시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람 속 잠자는 동전·외화 모으기 운동’ 모금함 개봉식에서 송광운 북구청장과 청년간담회의 임원들이 저금통을 열어 동전을 꺼내고 있다. 이번 동전모으기 운동에는 북구청 직원과 27개 주민센터, 주민들이 참여했고 성금은 연말 불우이웃을 위해 쓰인다.

·남명주기자 mina@kwangju.co.kr

계파 전쟁...山으로 가는 새정치 쏠대

빅3 당권경쟁 ‘그들만의 리그’

국민선거인단 명부 분실 공방

새정치민주연합의 2·8 정당대회를 앞두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토대로 정권 창출을 위한 역량 결집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계파 전쟁으로 인한 심각한 분열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15일 전주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권 주자를 3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 방식을 채택한 것과 관련, 당

내에서는 당권 경쟁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컷-오프가 중앙위원(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단체인장 등 360여명) 투표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당내에서 가장 큰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비대위원 등 ‘빅 3’가 당권에 도전한다면 컷-오프는 하나하나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권 도전 여부로 주목 받았던 김부겸 전 의원이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도 이 같은 당내 현실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당권 경쟁이 별다른 변화 없

이 ‘빅 3’ 구도로 가게 된다면 결국 변화와 혁신의 경쟁 구도보다는 ‘계파 전쟁’ 양상을 띠게 되면서 전대의 흥행 참패는 물론 심각한 분열의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에서는 36만명에 달하는 국민선거참여선거인단 명부가 분실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당시 이전 과정에서 분실됐다는 것이다.

국민선거인단은 2012년 전대와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모집됐으며 비교적 친노 성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친노 진영에서는 명부

분실에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 등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놓고 각 계파에서는 이전투구식 줄다리기전을 계속하고 있다.

전주위에서는 18일 최종 회의를 열고 국민선거참여선거인단 명부 분실 문제와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결정할 방침이지만 당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에서는 과거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 국가소속기관 인정하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정부규탄 성명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부정하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소속 18명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아직 첫발도 떼지

않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전부를 법인에 위탁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어 “정부는 현행(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운영’

과 동조 제2항의 ‘문화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둔다’라는 조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수익사업 등을 위한 법인으로 아시아문화개발임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정부는 억지 주장을 하기에 앞서 특별법 제정 취지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아무리

지난 정부에서 결정했다 해도, 2006년 당시 현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갑운 국회의장, 정몽준 의원, 이재오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30여명을 포함한 15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제정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일환”이라며 “그런데 아시아문화전당이 첫발도 떼기 전에 특별법을 부정하는 것은 광주·전남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소속기관으로서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부정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된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상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한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시간 외곽휴선)